

■ 공원 탐방

⑨ 푸른길 공원



공원 옆 주택가 주민이 내건 빨래



공원 옆 통나무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



산수동 골다리 옛터 표지석

■ 도시제안

■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보고서

도시제안에서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광주녹색교통운동 김광훈 사무국장의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보고서'를 게재한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에 걸쳐 택시·버스조합 관계자 등과 함께 일본을 찾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MK 택시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행정기관에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폈다.

MK택시 최고 서비스는
운전자 교육·복지서 나온다



일본 도착 후 첫 번째 교육일정으로 잡은 곳은 MK택시이다. 사실 이번 연수의 핵심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점심을 먹는 것부터 MK택시의 교육은 시작이다. 영업소 및 교육장 내 식당은 운전자 전용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주변의 학생이나 주민들도 자주 찾고 있다. 식당뿐만 아니라 60여개 가까운 레인을 자랑하는 볼링장과 카페, 당구장 등을 건물 내에 갖추고 있어 이 또한 주민들과 운전자가 함께 이용한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공짜라는 것이다. 운전자들도 할인 혜택(20~50%)만 있을 뿐이다.

MK에 입사하는 신입사원은 2주간의 기본교육 후 회장, 부회장 중 1명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운행하면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고 있다. 실제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1층 주차장에 있는 신입사원 고객응대교육을 참관했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소 등이 갖춰져 있었으며 운전자들은 직접 면봉으로 자동차 키홀더까지 닦고 있었다. 세차가 완료된 차량은 별도 검사원이 있어서 점검 후 교대자에게 인수가 된다. 보통 세차에 2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운전자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경영자는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복지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주거실태까지 파악해 독신자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사원아파트 거주비용의 45%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매달 일정액만큼 장기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MK택시 운전자 복지는 일본의 최고 디자이너로 꼽히는 하나에 모리씨의 작품으로 5년여 설득 끝에 받은 작품이다. 이 근무복도 물론 무료가 아니며 운전자가 직접 돈을 주고 사야한다. 운전자들에 대한 자존심 회복과 최고의 대우로 대내외적으로 특정한 제정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되풀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덕분에 지난해 신입사원 경쟁률은 2000대1을 기록했다.

올바른 복장과 청결한 일터(택시), 일한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족한 없는 복지정책, 서포에 대한 배려 등이 안전한 MK택시를 만들고 있었다. <김광훈 광주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

“집 오래돼 불편하지만 공원 있어 위안”

③ 계림동 두산위브~ 조선대 정문

계림동에 우뚝 솟은 재개발 아파트는 단독주택, 높으면 2~3층의 노후 건물 등 주변 경관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계림동 일대가 일제시대에서 60·70년대에 걸쳐 지어진 건물들로 수차례 보수를 거친 노후주택들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2007년 광주 최초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반듯한 19층 아파트단지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계림동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열의'는 높아지지만 정작 개발에 나서야 할 민간사업자는 '경제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거주지를 개량할 수 없는 주민들은 그때 그때 비닐이나 페타이어 등을 이용하는 등 임시방편을 하며 살고 있다. 아예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있는 곳도 눈에 띈다. '특별한' 아파트를 지나면 푸른길공원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한 단독주택지로 이어지고 있다.

원권으로는 과거와 같은 덜 다듬어진 녹지. 오른쪽에는 높은 지대의 주택지 골목길이 나타난다. 이 길을 따라 전남대병원을 찾은 뒤 귀가하던 신모(여·57)씨는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걸어가는데 더 편하다”며 “집에 너무 오래돼 살기에 불편하지 그 외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동네 예찬론을 폈다.

설 명절을 앞둔 주운 날씨에도 운동을 하거나 목적지를 거거나, 또는 통나무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공원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다. 공원 바로 옆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닭들이 노니는 등이 일대가 광주시내라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는 길이 계속 이어졌다. 푸른길공원이 이 인근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인근 동네 주민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갖게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완만한 오르막길을 지나자 산수동골다리 옛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반겼다.

산수동에서 50년을 살았다는 정모(65)씨는 “기차가 다닐 때만 해도 이 골다리가 동네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동네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됐다”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야기하고 정을 나누던 곳”이라고 정의했다. 과거 기차는 이 ‘광장’을 거쳐 농장다리 밑을 관

재개발 지지부진 노후주택 곳곳 방치

노인들이 많이 찾아 “시설관리 신경을”

통했을 것이다. 농장다리에 대해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는 “일제시대 동구 동명동에서 지산동으로 넘어가는, 옛 경전선 철길 위로 놓인 다리”라고 말한다. 그는 “예전에 동명동 200번지 일대에 형무소가 있었고 이 다리 너머 지산동에 형무소농장이 있었을 무렵, 수감자들이 다리를 넘나들며 노역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풀이했다.

농장다리 밑에는 1930년대부터 기차와 관련 사진 6장이 전시돼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잡고 있다. 그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 채 장식물처럼 걸려 있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자체로 반가웠다. 이 농장다리 밑을 지나면서 길의 양편에 다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다. 또 그 사이 사이엔 더 깊숙이 옛 정취 그대로의 골목길들도 볼

수 있다.

공원에 나와 오랜만에 ‘햇볕 쬐기’를 즐기던 임택(77) 할아버지는 “주변에 운동 노인들밖에 없는데 공원에 들어서는 사실들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디자인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 이후 관리 등도 설치 전에 미리 검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임 할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쉼터였다. 이 쉼터에 처마가 없어 비가 오거나 더운 날씨에는 이용하기 불편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재질거리며 걸던 10대 소녀들도 만났다.

올해 조대여고에 진학한 양수빈(17)양 등 3명은 “푸른길공원을 통해 시내 어디로든 다 갈 수 있어 친구들과 자주 걷는다”며 “겨울철에는 가동이 안 되지만 여름에는 분수가 참 멋있다”고 미소지었다. 이곳을 지나면 도로의 소음과 부딪힌다. 이는 푸른길공원 원편이 제1순환도로인 필문로와 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차량도 함께 늘어나 아늑했던 분위기가 일순 바뀌는 신호와도 같다. 버스정류장에는 언제나 그렇듯 대학생들이, 푸른길에는 운동에 여념이 있는 노인들과 주부, 인도는 사람과 자전거 등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단독주택들도 없어지고 대학생들을 위한 주점이나 카페 등이 대신하고 있다.

모자에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한 손에 라디오를 든 윤관섭(70) 할아버지는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집과 푸른길을 오간다”며 “자전거가 너무 다녀 걷는 사람들이 불편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푸른길공원은 이미 그 주변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공원으로 인해 혜택을 입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조선대 정문을 지나며 공원은 필문로를 따라 전남대병원, 다시 대남로로 이어져 남광주역과 광주천을 거쳐간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푸른길공원에서 만난 닭 가족



옛 사진이 걸려 있는 농장다리 밑



허름한 단독주택과 고층아파트의 부조화

Happy Valentine

발렌타인데이! 입학,졸업!

행복한 날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히딩크호텔과 함께하세요!

LOVE

달콤한 특별할인

- event 01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 event 02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증정)
- event 03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할인
-칠순연, 각종세미나(대.중.소 연회장안비)-

한국이 낳은 동아시아 최고의
음악가 정율성선생
(1914~1976)

중국인구 40%이상 (6억이상)
중국의 위대한 음악가이며
민족주의자이며 항일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구 80%이상 (10억이상)
정율성이 작곡한 노래
최소 1곡이상 알고 있습니다.

중국 3대 음악가중 1명으로 추앙

히딩크관광호텔은 음악가 정율성선생 탄생지입니다.

주/요/작/품
연안송, 팔로군군가, 팔로군행진곡(중국 인민해방국가 지정), 연수요, 동해아부 재별가
홍안령에 눈꽃날리레, 푸른조곡 별노래, 우리는 행복해요, 5악기극(방무문), 오락동시사동
독창, 중창, 소합창, 동요, 뮤지컬, 오페라등 360여곡 작곡

본 관
지하2층 | 남·여 사우나
지하1층 | 뽕쌈, 보석벨기아
1층 | 커피숍, 안식식당
2층 | 비즈니스센터, 객실
3층 4층 5층 | 객실(총65실)
6층 | 연회장
7층 | 스키아일랜드, 패즈바, 연회장
8층 | 연회장

별 관
1층 | 오락실
2층 | 스포츠 마사지
3층 | 뽕쌈방
4층 | 가요주점

카피숍, 한·일식당, 연회장, 스포츠마사지, 한·일식당, 스키아일랜드 패즈바

www.hiddinkhotel.com 문의전화 (062)227-8500